

	제목	이란 영화의 이해
	발행언어	한국어
	발행처	부산대학교 출판부
	발행일	2015. 8. 31.
	저자	최병학
	출판국가	대한민국
	페이지수	224
	ISBN 또는 ISSN	978-8973164981

내용 요약

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로서, 영화 〈300〉에서 왜곡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, 페르시아는 신화와 예술과 관용의 나라이다. 또한 니체가 읊었던 짜라투스트라의 나라이기도 하다. 이 책은 이러한 깊은 역사를 지닌 이란의 영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.

이란 영화의 지평을 이루고 있는 전통은 4가지로서, 페르시아 전통, 이슬람 문화, 이란 혁명과 신비주의 전통을 들 수 있다. 이러한 지평 하에 이란 영화는 독특한 영상 이미지를 주고 있다.

한편, 이란 영화는 동서의 양극화를 해체하는 전위도구이자, 영상 이미지의 환타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, 현실의 아픔에 눈을 돌리는 시선이 되기도 한다. 그 시선은 차일드 시네마라고 불리는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에서 잘 나타난다. 이러한 장르의 영화는 이란의 종교 정치적 권력이 개입한 결과이기도 하지만,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란 영화 산업을 예술적으로 육성하게 된다.